

포스트모던 윤리와 주체, <모비딕>과 문학의 윤리비평

손아영*

목 차

1. 서론
2. 주체와 윤리 - 현상 너머, 초월하는 주체성의 발견
3. <모비딕>을 통해 보는 텍스트의 윤리성
- 주체화의 실패: 타자성으로 향하는 주체
4. 주체와 예술 - 포스트모던 윤리비평가로서의 대중

<국문초록>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초 안에서 주체성과 타자성의 관계들을 심구하면서 이를 윤리성으로 발전시킨 연구들에 집중하며, 이러한 포스트모던 윤리를 문학비평과 접목할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를 위해 자끄 데리다, 자끄 라캉 그리고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이론을 살핀다. 예술로서의 문학은 그 자체로 주체화를 방해하는 힘을 지니며, 이로 인해 주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압도적인 감흥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의 문학 텍스트는 인식의 작동을 지속적으로 중단시키고 보류시킨다. 이것은 경험적 주체의 총체성 내부에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비-경험적 경험이라 할 만하는데, 이 비-경험적 경험은 또한 주체가 절대적 타자성을 감지하고 대면하는 찰나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문학 텍스트가 주체에게 타자성을 대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목하는 윤리적 주체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됨을 논증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던 문학비평의 예시로 질 들뢰즈가 허먼 멜빌의 대작<모비딕>을 두고 그의 중심 이론중 하나인 되기(becoming)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 언급한 것을 주목하며, 에이헤브 선장과 모비딕 사이의 식별불가능성(discernibility)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텍스트가 지닌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주제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고려한다. 포스트모던 윤리의 견해에서, 이것은 인지적 주제로서의 독자가 무의미이자 총체의 외부인 절대적 타자성을 감지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포스트모더니즘, 윤리, 초월, 주체성, 타자성, 문학비평, 송고, <모비딕>

1. 서론

가장 현대의 비평이라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가 제시한 이성적 사유를 향한 의구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서구의 전통적인 이성 중심의 사유는 이분의 작동을 기본으로 존재와 부재, 주체와 대상의 명백한 구분을 확신한다. 그러나 해체주의는 이러한 이분적 사고의 틈새에서 단순한 부재로 치부할 수 없는 어떠한 무의미의 영역을 발견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무의미의 영역을 타자적 영역, 즉 타자성으로 보고 인간의 사유가 이 타자성과 가지는 긴밀한 관계를 포착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본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조 안에서 행해진 윤리적 연구들이 특히 이러한 타자성과 관계하는 주체성을 심구한 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나아가 포스트모던 윤리가 문학비평에 접목될 수 있을지 탐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이 인식화될 수 없는 절대적 타자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이며 세부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연구들에서 타자성을 인식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남을 언급하고자 하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포스트모던 윤리는 인식이 사유화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성을 향해 무화되는 주체성의 또 다른 면모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시점이라고 보아진다. 이에 비록 그 논의가 총론을 개괄하는 성격을 지닐지라도, 포스트모더니즘이 밝히고자 했던 타자성의 문

제를 재차 환기하고자 시도하는 바이다.

전개에 앞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그에 대한 오인이라 할 수 있는 회의주의의 혼동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간결한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언어와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 즉 타자성의 영역을 탐구함에 따라 그것이 존재의 실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다는 오인이 있기 때문에, 본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 오인에 대해 먼저 설명하려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식으로 환원될 수 없고 사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존재하는 어떠한 영역에 대한 연구를 포괄한다. 예컨대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으로 “불일치(paralogy)에 대한 정당화¹⁾”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 과 합리의 동일화 하려는 움직임에 속하지 않는 불일치의 조건들을 조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불일치의 조건들을 단순한 부재로 치부하지 않고 명백한 존재로 다룸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이탈과 불일치의 성질을 가진 어떤 것이 제시하는 근원적 의미를 탐구함을 의미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인식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상과 언어로 재현될 수 없는 어떠한 존재와 그 성질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역이 언어와 현상의 외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탈정당화와 허무주의의 씨앗²⁾”으로, 회의주의로 치부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리오타르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단순히 부정적인 회의주의로 관념화하는 것에 대해 “슬픈 작업은 이미 끝났다³⁾”고 단언하는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단순히 부재에 대한 천착이 아니라 존재와 부재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의미와 현상 이전의 근원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이

1) Lyotard, Jean-Francois. *The Postmodern Conditions*.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61.

2) Ibid. p.38.

3) Ibid. p.41.

다. 회의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인식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는 데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타자성의 영역에서 단순한 부재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데서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지성과 인식이 종결되어 소멸되는 시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인식의 오랜 역사와 나아가 그 역사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무의미의 영역, 비-재현성과 비-현상성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모든 형이상학적 신념과 이상들을 파괴하는 것은 실존의 변증적이고 역동적인(dialectic and dynamic) 그 스스로의 성질⁴⁾”이며, 인식에 대한 의구심으로 존재론과 이원론에 이미 존재하는 의미화 할 수 없는 영역이 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성적 사유에 대한 의심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부정적인 의구심이라기보다 존재와 부재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구하게 한 계기라 할 수 있으며, “인간 지성이 고안했던 어떤 것 이든 넘어설 가능성⁵⁾”을 가질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골자는 이분의 구조와 그 해체를 통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원론의 틈새에 존재하는 무의미의 영역을 타자성의 영역이라 보고, 이 타자성에서부터 인식의 허구성을 발견하며 이를 윤리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해체주의자인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로고스 중심주의와 이성 중심주의의 견고성을 의문시하며 그것의 해체를 통해 “독재자의 죽음(death of tyrant)⁶⁾”을 천명한 바 있다. 그는 해체를 통해 오랜 서구 역사에서 절대적인 규율이었던 이성과 합리의 우위성을 붕괴하고, 해체는 “노스탤지어의 이면(the other side of nostalgia)⁷⁾”을 바라볼

4) Glan, Martin T. “Deconstruction and Breakthrough in Nietzsche and Nagarjuna.” Nietzsche and Asian Thought, eds. Graham Parke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93.

5) Ibid. p.109.

6) Derrida, Jacques. “Differance”,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4.

7) Ibid. p.27.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이는 해체의 목적이 불안정성의 증폭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야를 가질 자유가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포스트모더니즘 윤리학의 정점이라 할 만한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본질의 붕괴는 윤리(the breakup of essence is ethics)⁸⁾”라 선언한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타자 윤리학으로, 자아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인식의 주체성과 그 외계에 머무르는 절대적 타자성의 상징인 타자와의 관계를 심구한다. 본질의 붕괴란 인간 존재의 본질로 간주 되어온 이성과 인식의 권위가 타자성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무화됨을 가리키며, 이러한 자발적 해체의 가능성이 주체성의 근원적인 윤리성에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화 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포스트모던 논의는 철학 및 이론의 영역으로 한계 되지 않는데,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주체성은 무의미의 영역을 동반하며 형성되기 때문에 주체성에는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타자의 영역이 언제나 존재함을 연구한다. 그는 “회의론은 윤리(Scepticism is an ethic)⁹⁾”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주체가 파악할 수 없는 타자성에 대한 인정이 윤리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면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바라보는 주체의 윤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경험적, 인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에 대한 의심은 인간 존재의 제약이 아니라 이성과 현상을 넘어서는 인간성 본래의 초월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진 셈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성이 자유롭고 융성하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실현할 윤리¹⁰⁾”를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8)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Trans. Alphonso Lingis(Pittsburgh: U of Duquesne P, 1998). p.14.

9)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s. Jacques 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New York: W.W.Norton & Company.Inc. 1998). p.224.

10) Lee, Jae-Seong. *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 London:Lexington Books, 2015. p.79.

본고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윤리가 특히 문학비평과 접목될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필자가 고려하기에 문학은 주체로서의 독자가 외부의 타자성을 수용하도록 이끈다는 데서 윤리성을 띠는 탁월한 예술의 장르이기 때문이다. 구체화하자면, 텍스트는 그 스스로 주체화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는 지속적인 주체화의 실패로 인해 텍스트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소모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사로잡힌다. 이때의 주체는 언어와 현상의 명확한 의미화가 불가능한 전적인 외부를 감지하게 되며, 내면에 견고하게 개념화된 감정의 경계를 흐트리는 미묘한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 이는 명확한 설명으로 환원될 수는 없지만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감흥으로, 주체가 현상적 존재 이상일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텍스트의 해독 불가능성을 포스트모던 윤리가 말하는 타자성과 연결하고, 그것이 주체와 가지는 관계를 논하고자 하는 바이다.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해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언어의 개방성을 살펴본 후, 주체의 감성을 통한 외계의 수용, 예술을 통한 숭고의 발현으로 이 논의를 심화하려 한다. 또한 텍스트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있어서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그의 이론의 일부인 되기(becoming)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은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딕>(Moby-Dick, 1857)을 살펴보려 한다. 본고의 논의는 “텍스트의 윤리적 읽기의 이론은 타자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¹¹⁾”는 포스트모던 비평의 견해에 동의하는 맥락에서, 문학 텍스트를 통한 주체성의 윤리성 발현에 대한 논증을 시도하고자 하는 바이다.

2. 주체와 윤리 - 현상 너머, 초월하는 주체성의 발견

본고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체성의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고, 이로써 주

11) Ibid. p.79.

체성이 현상을 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해체주의가 이성적 사유의 견고성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인간이 이성적 존재 이상일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언어에 분명한 실체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언어적 존재인 인간의 전통적 주체성의 관념에 의문을 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성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타자성과 외계성이 단순히 부재라고 정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드러난다. 데리다의 사유들은 서구 현상학의 해체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윤리로 귀결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데리다가 서구의 이성 중심의 이분적 사고를 와해시키면서 일종의 공백의 영역을 드러냈으며, 이것을 논의하고자 한 시도가 포스트모던 윤리의 시작점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즉, 해체주의는 로고스 중심주의와 음성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사유의 모든 전통에 의문을 가졌고, 이것이 또한 인식적 주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윤리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이에 그의 연구 중 언어를 중심으로 한 사유를 살펴보려 한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언어의 의미화는 기표와 기의의 견고한 접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언어는 분명한 의미를 구축한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데리다는 언어의 견고성과 명확성에 대한 의문을 표한다. 『차연(“Differance”)』에서 데리다는 언어가 “지연으로써의 차연, 공백으로써의 차연¹²⁾”이라고 주장한다. 차연은 지연과 공백에 불과한 것으로, 차연에 의해 의미화되는 언어를 견고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차연으로서의 언어는 정확한 기표와 기의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의미 사이, 그리고 기호와 기호 사이를 부유하는 공백의 작용들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소통은 명백한 의미의 교환이 될 수 없고, 미끄러지듯

12) Derrida, Jacques. Op. cit(1982). p.9.

흔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지속적 연동을 통해 오직 의미화의 가능성을 품으면서 소통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차연으로서의 언어는 “흔적의 삭제의 흔적(a trace of the erasure of the trace)¹³⁾”이자 “침묵의 놀이(silent play)¹⁴⁾”라는 새로운 전제가 가능해졌고, 그 구심점이 의미와 기호에서 공백으로 이동되었다. 이 새로운 전제는 언어가 대상, 나아가 세계를 명확한 의미로 반영 가능하고, 따라서 재현의 총체성이 구축된다는 전통적 전제에 반하는 것이다. 언어의 핵심에 공백이 있다면, 총체성의 내부에도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이를 “총체성은 다른 곳(elsewhere)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¹⁵⁾”는 언급으로 표명한다. 총체성이 외부에 중심을 두고 구축된다는 것은 총체성은 폐쇄된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 구심점이 총체성에 속하지 않는 외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의 전통적 관념에서 의미화의 시슬 사이의 공백들은 무의미에 불과하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 무의미를 논의의 표면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총체성의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근원적인 힘은 오히려 그 외계에 있다는 것을 직관한 것이다.

나아가, 무의미와 공백의 영역은 단순한 부제가 아니라 외계성이자 타자성이고, 인간은 그 영역과 불가피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해체론이 드러내는 바이다. 인식이 구축하고자 하는 총체성은 타자성을 향해 개방되어 있고, 이 개방은 언어와 재현의 총체성 뿐 아니라 주체성 자체와도 직접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주체는 언어에 각인되어 있으며, 언어의 기능이며, 오직 차연에 따르면서 말하는 주체가 된다고 한다.¹⁶⁾ 데리다의 이러한 언급은 주체성의 새로운 요소들을 드러낸다. 먼저, 주체가 오직 언어의 체계에 순응하면서 스스로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언어를 활용하는 지배적 존재라는 관념에 반한다. 주체

13) Ibid. p.24.

14) Ibid. p.5.

15) Derrida, Jacques. Op. cit(1978). p.279.

16) Derrida, Jacques. Op. cit(1982). p.15.

는 언어에 순응할 뿐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차연으로서의 언어는 흔적과 공백에 의해 의미화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총체를 구축하지 못한 채 외부로 개방되어 있으며, 이러한 언어의 규칙에 따르는 주체 또한 외부로 개방된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데리다를 통해, 이성을 중심으로 지성을 발전시키는 권위적인 주체성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는 또 다른 주체성이 밝혀지는 바이다. 이때의 주체는 외부를 선별하고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외계로 개방된 상태, 즉 타자성으로 향해있으며 그것에 순응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해체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관철된 견고한 주체성의 개념을 의문시한다. 데리다가 의미하는 “독재자의 죽음¹⁷⁾”은 “모든 변증법에게는 이질적인 단언일 노스텔지어의 이면¹⁸⁾”을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성적 주체의 종식은 죽음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이면에 공백으로서 자리하는 타자성이 배제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성과 동등한 표면에 배치될 수 있는 요소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성이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을 포기하면,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해체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무화의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허용하는 자유의 지점을 향하는 셈이다. “해체의 진정한 관심은 언어의 타자(the Other of language)로 이끄는 것¹⁹⁾”에 다르지 않으며,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 시대의 전체성과 연관된 특정한 외재성의 지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²⁰⁾”고 언급한다.

전통적 주체성에 대한 의문은 철학의 영역 뿐 아니라 정신분석학의 연구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데리다의 해체론이 언어가 총체적이고

17) Ibid. p.4.

18) Ibid. p.27.

19) Lee, Jae-Seong. Op. cit. p.37.

20)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7). p.161.

안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는 전제를 재고한다면, 라캉은 정신분석학의 영역에서 주체성 형성에 경험적 요소로 분류될 수 없는 어떤 것이 관여하고 있음을 연구한다. 라캉을 포스트모던 사상가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험적 요소로 분류될 수 없는 이 공허(void)의 영역 또한 타자성의 영역인 셈이기 때문에, 라캉의 공허와 주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타자성과 주체의 관계를 논의하는 포스트모던 윤리와 깊게 연관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라캉의 정신분석학으로 타자성을 접근하면, 경험적 주체가 그것의 외부인 타자성과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라캉의 연구 중 소외(alienation)와 분리(separation)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라캉의 소외와 분리는 주체성 내부에 설명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공백의 영역을 설명한다.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라캉 역시 정신분석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체성 형성의 핵심적 과정인 소외와 분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신분석학은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²¹⁾ 따라서 라캉의 논의를 따르면 비-재현성으로 대표될 뿐인 타자성을 정신분석학의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철학 및 비평의 관념적 용어만으로는 모호해지기 쉬운 주체와 타자성과의 관계에 좀 더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하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아직 완전히 의미를 가지지 못한 자아가 대타자의 영역을 통해 반영되며 의미를 가지는 주체로 형성된다는 큰 맥락을 가진다. 이 중 주체의 사라짐(aphanisis)이 소외와 분리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소외와 분리는 대타자에 의해 주체가 대표될 때 주체의 일부분이 대표되지 못한 채 소외되어 잉여로 남는 것으로,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통해 주체는 대표되면 반드시 사라지는 양가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라캉은 이것을 하나의 결여로 의미하고 있다.²²⁾ 소외와 분리는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타

21) 신명아, 『라캉의 주체개념과 정신분석의 윤리학』, 『현대정신분석』 2(1), 2000, 145면.

22) 같은 글, 147면.

자에 의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미로 결정된 공백과도 같은 영역이 주체의 내부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 공백의 영역은 잔여 하지만 무의미이기 때문에 주체성의 결여이고, 무의미하면서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주체성의 잉여이기도 하다. 결국 주체의 사라짐은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주체성의 일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다.

라캉은 주체의 사라짐에 대해 “만약 그것이 기표에 의해 생산된 하나의 의미로서 한 면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른 면에서는 사라짐(aphanisis)으로 나타난다”(S XI 210)고 하며, “주체가 의미로서 어떤 곳에 나타난다면 그는 다른 곳에서는 사라짐으로 존재하는 것이 명백해진다²³⁾”고 말한다. 주체의 나타남은 사라짐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 사라짐은 완전한 상실이 아니다. 주체의 사라짐은 확실하게 반영되고 결정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주체의 일부이다. 따라서 사라짐은 재현과 의미의 영역 밖에서 존재하는 주체성의 일부라 하겠다. 그런데 이 사라짐의 주체성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대상을 통해 경험적 주체를 사로잡으며 출현하고, 이 출현은 계산되거나 예측될 수 없다. 이는 “주체가 원래 사라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주이상스를 자극하는 어떤 무의미적인 대상에 의해 순간적으로 접근될 수 있을 뿐이다²⁴⁾”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주체성의 일부는 여전히 어디선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경험적 주체는 의도치 않은 상태에서 그 출현에 의해 전적으로 동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라짐의 주체는 대타자를 통해 형성된 주체성 외부에 있기 때문에, 대타자로 대변되는 위계적 질서나 사회적 통념에 복속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남아있는 주체성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라짐의 주체가 예기치 못한 대상과 사건을 통해 출현할 때, 그것은 재현과 현상의 영역에서 조직된 체험적 주체를 중단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이때의 주체는 재현과 현상의 영역 외부에서,

23) Lacan, Jacques, Op. cit(1998), p.218.

24) 신명아, 앞의 글, 151면.

체험의 총체 외부에서 발현되는 주체이다. 라캉은 “사라짐의 주체가 없는 주체는 없다²⁵⁾”고 말한다. 모든 경험적 주체의 이면에는 사라짐의 주체가 남아 있는데, 이는 경험적 주체에게는 완전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경험적 주체에게로 통합되거나 복속될 수 없다. 라캉의 사라짐의 주체는 인간의 주체성이란 인식, 재현, 경험으로 구축되는 현상적 세계와 외계적 영역에서 동시에 형성됨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주체에게는 그가 알지 못하는 주체가 언제나 동반된다. 라캉은 ‘알지 못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다른 전제임을 인지하고 이것을 주체성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시도한다. ‘존재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자아에게는 이질적인 타자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 하겠다. 타자성은 단순한 무화가 아니라 순수하게 존재하는 외계의 영역이며, 주체가 근원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출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덧붙여 라캉은 “회의론은 윤리”라고 표명하며, 그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One can know nothing)의 지점에 주체를 위치²⁶⁾”시킨다고 언급한다. 라캉은 이 타자성에 대한 인정이 윤리의 시작이라 바라본 셈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윤리는 타자성을 인지하고 그 영역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주체와 가지는 관계, 나아가 그것이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의 정점은 기실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이라 할 수 있다. 레비나스의 사상들은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후기 구조주의가 윤리적 전환을 하는데 핵심적인 영향력을 주었다.²⁷⁾” 레비나스의 윤리철학은 ‘타자를 위한 동일자’(one for the other)로 대표되며, 타자와의 관계는 신체 안에 새겨져(inscribed) 있다²⁸⁾고 말할 정도로 인간 존재는 타자성과 불가피한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25) Lacan, Jacques. Op. cit(1998). p.221.

26) Ibid. pp.223~224.

27) Davis, Colin. *After Poststructuralism: Reading Stories and Theory*(New York: Routledge. 2004). p.4.

28)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Pittsburgh: U of Duquesne P. 1969). p.117.

따라 그는 감성(sensibility), 향유(enjoyment), 책임(responsibility), 수동성(passivity)등 인간의 다양한 속성에서 주체성과 타자성이 갖는 본질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성은 타자 또는 대상에 내포된, 단순히 주체가 알 수 없는 어떤 것 이상을 의미한다. 레비나스의 타자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전적으로 무화시키며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이질적인, 절대적 타자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 중 본고가 살펴보려는 부분은 레비나스의 감성에 대한 이론이다. 레비나스의 감성은 단순한 감정과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느껴졌거나 인식한 것으로 간결하게 축소될 수 없는, 현상적 감각과 감정을 넘어서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때의 감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비-언어적이고, 비-현상적인 것으로, 레비나스의 감성을 통해 주체는 현상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감성적 이미지에는 아직 현상적 언어로 환원되지 못해 무의미로 남겨진 의미가 있으며, 이 무의미를 대면하며 전적으로 이질적 외부인 타자성에게 노출된다. 이 타자성은 주체 내부의 언어와 경험에 속하지 않는 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체의 총체성 안에서는 반영될 수 없다. 따라서 감성의 영역은 언제나 외계적인 상태, 무의미한 의미인 채로 남아 있는 근원적인 의미의 영역이며, 이러한 감성적 이미지를 총체성 내부의 이것 또는 저것의 의미로 대입시켜 내부의 동일성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인식의 작동은 실패를 전제한 작동일 뿐이다. 모순적이게도, 실패를 전제로 작동하는 인식의 의미화가 연동되면서 주체는 오히려 이 근원적이고 절대적 외부인 타자성의 영역으로 전적으로 개방된다 하겠다. 이 개방된 통로 안에서 주체가 감성을 통해 수용하는 의미는 “변형을 겪지 않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인²⁹⁾” 것으로, 주체는 변증법으로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대상과 세계 그 자체를 감지할 수 있다. 감성은 감각-인지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선택권 없이 주어진 능력

29) Levinas, Emmanuel. Op. cit(1998). p.61.

이며, 감성을 통해 주체는 “지지물 없이 순수한 질료의 요소 그 자체와의 관계를 성립³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겠다. 다시 말해, 감성을 통한 외부의 수용은 이성적 주체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의식적 주체성의 지배권을 벗어난, 매우 직접적이지만 또한 너무나 낮은 이 감성적 의미는 하나의 의미로 매듭지어져 경험적 주체에게 흡수되는 또 다른 정보가 아니라 의미의 순수한 성질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비-경험적 경험’이다. 주체는 감성의 의미와 무의미가 뒤섞이는 이 융합의 통로에서 어떠한 유입도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즉, 감성을 통해서 “피부의 표면에서, 신경의 가장자리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 스스로 내어주는”, 인지적 주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주체성이 확립된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레비나스는 감성이 “자아의 동일성의 실패이자 결함”이며, “극한까지 밀어붙여지는 이 감성은, 주체성으로서의 감성³¹⁾”이라고 고찰한다. 감성의 주체성은 선택할 수 없이 주어진 것이며, 인식적 주체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또 다른 주체성이다. 감성의 주체성은 인식이 구축한 총체성 내부에 안식하는 자아를 가장 끝단의 경계까지 밀어붙여 결국 그 총체를 파열시키고, 어떠한 의미나 경험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무의미와 대면케 한다. 감성의 주체성을 언제나 동반하는 주체는 스스로의 실패를 이미 전제된 주체이며, 그 실패를 거부할 수 없는 수동적인 주체이기도 하다. 감성의 통로에서 주체가 근원적인 의미의 순수성을 수용하며 타자성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 인지의 주체는 권한을 상실하고 타자성에게 수동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인지의 주체성이 지속적인 수동성 안에 머무는 이유는 타자성은 무한한 의미의 근원이며, 주체는 그 모두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끊임없는 포착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귀결된다. 타자성은 소진되지 않는 무한하고 근원적인 의미의 영역이며, 주체에게 그 대면을 강제하여 그를 수동적 존재로 고정시킨다. 나아가 레비나스는 감각으로 영위하며 “먹고 즐

30) Levinas, Emmanuel. Op. cit(1969). p.15.

31) ibid. p.15.

기는 미각과 후각의 의미화”를 거치는 인간 존재는 모두 “타자를 위한 일자³²⁾”의 가능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감성의 주체성은 주체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성은 이미 타자성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의 이론을 통해 타자성이 주체에게 가진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이 드러나며, 그는 “다른 어떤 수동성보다 더 수동적인 수동성³³⁾”을 주체성의 필수요건으로 수립한다. 인간 존재의 당위성은 인지적 주체의 자유의지에 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지적 주체에게 필수적으로 전제된 실패와 그를 통한 타자성의 수용에서 수립된다. 결국, 주체는 본디 타자성에 열려있고 오직 그것의 본래의 모습을 목격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에서 데리다는 해체를 통해 이분의 결속을 와해시켜 타자성을 명시하며,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주체성은 이미 결핍이자 잉여라 할 만한 무의미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심구한다. 나아가 레비나스의 윤리철학은 타자와 주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결국 주체는 타자성에게 수동적으로 귀속되는 존재임을 논한다. 감각-인지적 존재로서 인간은 타자성이 제시하는 순수한 의미의 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그 수용에 있어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의 “본질의 붕괴는 윤리³⁴⁾”라는 언급은, 사유와 인지가 주체성의 본질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붕괴하고, 즉각적으로 외재성과 타자성으로 향하는 인간성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 포스트모던 윤리임을 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레비나스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 윤리는 전통적 주체성의 본질적 요소인 인지와 사유의 권위를 무화시키며 이질적 외계인 타자성의 영역에 집중할 뿐 아니라, 타자성은 주체를 수동적으로 속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자성이 주체에게 가지는 영향력은 “힘이 없는 권위(an authority without force)³⁵⁾”라고도 표현되듯이, 그 힘이 인간성

32) Levinas, Emmanuel. Op. cit(1998). p.72.

33) Ibid. p.72.

34) Ibid. p.14.

을 속박하고 제약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겠다. 오히려 포스트모던 윤리는 언제나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내부의 동일성을 확장하고 이질적 외계를 편집하는 전통적인 주체에게 의문을 표한다. 즉,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타자성을 배제하고 삭제하는 주체가 인간성을 전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성의 근원적인 차원에는 무력한 타자성을 가장 자발적인 의지로 수용하는 성질이 있으며, 그 의지는 인식적 주체의 권한을 무화하고 수동적으로 만들 만큼 강력하다. 타자성에게 수동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는 외부의 물리적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기관과 기능에 의해서 발현된다. 수동적 주체의 출현으로 인간은 구속되고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적 세계 너머에서 영위하는 자유를 가진다. 타자성을 대면하는 주체는 현상적 세계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것의 근원적인 의미를 감지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총체는 외재를 욕망³⁶⁾”하며, 스스로를 파열하여 외재에 닿고자 하는 가장 자발적인 욕망에 의해 주체는 현상을 넘어서는 일종의 초월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3. 〈모비딕〉을 통해 보는 텍스트의 윤리성 - 주체화의 실패 : 타자성으로 향하는 주체

그렇다면 인간의 총체성이 스스로를 파열하고 타자성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계기는 무엇인가? 본고는 예술, 그 중 특히 문학작품이 그러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제시되는 예술이다. 데리다는 언어에 대한 해체적 접근을 통해 언어는 총체성을 구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로 개방된 채 연동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언어의 이러한 성질은 문학과도 연관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하는 예술인 문학 또한 그것이

35) Bauman, Zigmund. *Postmodern Ethics*(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3). p.124.

36) Lee, Jae-Seong. Op. cit. p.81.

제시하고자 하는 총체를 넘어서며 하나의 주제화로 종결되어 완료되지 못한 채 외계로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데리다는 “쓰기의 개념은 언어를 이해하면서도 초과한다³⁷⁾”고 말한다. 이는 쓰기는 견고한 의미를 취합하여 주제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의 실행 과정에서 목적을 이탈하고 넘어서며, 이 과정을 통해 타자성과 경계를 접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렇듯 언어에는 완전히 의미화 될 수 없는 이면이 있다. 이는 주제화 될 수 없기에 실패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존재하는 의미이기에 잉여이기도 하다. 언어에는 이미 현상과 의미의 외부에 도달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그러한 성질로 인해 언어는 외계성의 흔적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를 활용할 때, 인식은 외부를 포착하면서도 실패하고, 그 결과 타자성의 흔적을 포함한다. 언어를 통한 정확한 재현과 의미화의 시도는 동시에 그 시도의 실패를 동반하며 이루어지며, 이 실패에서 언어는 외계로 개방된다. 데리다는 “의미와 언어를 개방하는 것은 자연적 현존의 사라짐으로써의 쓰기³⁸⁾”라고 언급한다. 이는 존재에 대한 재현의 명확성이 의문에 처해질 때 언어의 총체가 외부로 열리고 외부의 무한한 의미가 언어 내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의 언어는 유동적이고 무한하며, 응집 될 수 없는 성질을 띤다. 이는 순수 언어를 중심사상으로 사유를 펼치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순수 언어의 그 씨앗은 어떠한 해결책으로도 결정되거나 해결 될 수 없다³⁹⁾”는 언급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벤야민의 순수 언어 또한 주제화되거나 견고한 의미화로 결정 될 수 없는 언어의 근본적 성질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쓰기와 문학작품에 대한 포스트모던 논의는 들뢰즈의 연구로도 이어진다. 들뢰즈는 “문학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한 것으로 비난⁴⁰⁾”받을 정도로 자주

37) Derrida, Jacques. Op. cit(1997). p.8.

38) Ibid. p.159.

39) Benjamin, Walter. *Illuminations*. Trans. Harry Zohn. Ed. Hanna Arsendt(New York: Schocken Books. 2007). p.77.

40) Deleuze, Gilles. *A Thousand Plateaus*. Trans. Brian Massumi(Minneapolis: Minnesota UP, 1987). p.4.

문학을 그의 연구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그에게 있어 “쓰기는 되기(becoming)의 문제로, 언제나 불완전하며, 언제나 형태화 중인 안개와 같은 상태⁴¹⁾”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쓰기는 결코 결론지을 수 없는, 영구적으로 여전히 형성 중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는 완성되지 않은, 무엇인가를 향해있을 뿐인 모호하고 흐릿한 상태이다. 이때의 쓰기는 주제화나 의미화, 즉 글이 목적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행위에 다르지 않다. 또한 작가는 이러한 쓰기의 활동에 내맡겨진 누군가로, “불가능을 그려내고”, “그가 보고 들은 것으로 눈이 충혈되고 고막이 관통된 채 돌아오는⁴²⁾” 개인이다. 그들이 창조한 “문학작품의 인물들의 (...) 모든 개인적 특성은 불명확한 것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일종의 환영으로 그들을 고취시킨다.⁴³⁾” 다시 말해, 들뢰즈는 쓰기를 영구적으로 미완성인 안개와 같은 상태로 보며, 작가는 인간 존재가 감내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것을 할당받은 누군가이고, 문학작품 내부에 재현된 인물들은 현상과 환영의 접점으로 내몰리는 개인을 형상화한다. 이때의 문학작품은 주제화로 종결될 수 없고, 역사 및 문화의 증거물이나 인간의 양상에 대한 재현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오히려 문학작품은 유동하는 유기체와 같은 상태로, 현상의 가장 극단의 경계에서 인지불가능성과 불명확성을 향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들뢰즈의 문학관을 다시 명백히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들뢰즈의 문학관은 문학작품을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교화의 기능을 기대하거나 역사나 문화의 고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 이미 종착에서 미끄러지며 실패를 야기하고 있는 의미화이며, 그 창조자 역시 거대한 어떤 것에 내맡겨진 인물인데다, 그를 통해 재현된 인물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한

41) Deleuze, Gilles.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Trans. Daniel W. Smith and Michael A. Groco. (Minneapolis: Minnesota UP, 1997). p.3.

42) Ibid. p.3.

43) Ibid. p.3.

계에 밀어 붙여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들뢰즈의 문학관이 포스트모던 문학비평과 상통한다 하겠다. 따라서 그의 문학작품에 대한 접근을 일부 살펴보면 포스트모던 문학비평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듯하다.

이에 본고는 들뢰즈의 문학작품에 대한 고찰 중 멜빌의 <모비딕>에 대한 그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으로 포스트모던 윤리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 주제화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면 <모비딕>은 자신의 한쪽 다리를 앓아간 전설적인 흰 고래를 투사적 집념과 끈기로 추격하는 선장 에이해브(Ahab)의 모험담이라 볼 수 있다. 추격하는 주도적 인물은 에이해브 선장이며, 추격당하는 대상은 모비딕으로 알려진 흰 고래이다. 이 주객 관계는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고, 역동적인 추격의 행동과 그에 따르는 사건들이 작품 전체의 내용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러한 주제화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들뢰즈는 “<모비딕>은 되기(becoming)의 가장 훌륭한 걸작 중 하나이다. 에이해브 선장은 거부할 수 없는 고래-되기(becoming-whale)를 가지고 있다⁴⁴⁾”고 평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에이해브 선장과 모비딕 사이의 “되기”의 영역은 “구분 불가능성(indistinction)과 식별 불가능성(indiscernibility)의 객관적 영역⁴⁵⁾”이다. 들뢰즈의 “식별 불가능성은 또한 두 면의 구별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면이 (...) 그 다른 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구별성 자체가 할당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⁴⁶⁾” 따라서 에이해브의 고래-되기는 사냥꾼과 사냥감, 추격하는 주체와 추격당하는 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영역, 즉 주체/에이해브와 대상/모비딕 사이의 구분이 흐릿해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에이해브와 모비딕은 여전히 상호적

44) Deleuze, Gilles. Op. cit(1987). p.284.

45) Deleuze, Gilles. Op. cit(1997).

46) Deleuze, Gilles. *Cinema 2 - The Time Image*. Trans. Hugh Tomlinson & Robert Galeta(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p.70.

으로 독특하면서도 주체와 대상의 경계는 무화된 상태에 있다. 흰 고래는 사라지지도 포획되지도 않는 거리를 유지한 채 산발적 출현으로 에이해브를 사로잡고, 지속적으로 에이해브를 자극한다. 마치 에이해브가 흰 고래를 추격 하면서도 동시에 흰 고래에 의해 추격당하는 것 같다. 오히려 흰 고래가 에이해브를 신비한 힘으로 포박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에이해브는 “기계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충동⁴⁷⁾”으로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힘에 떠밀리듯 모비딕에게 이끌린다. 추격하는 주체와 추격당하는 대상 사이의 경계가 융합되는 이 지점은 “에이해브의 에너지가 그 되어감의 단계를 향해 흐른다⁴⁸⁾”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텍스트에 대한 의미화가 실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독자를 텍스트 내부에 머물게 하면서도 그것의 외부를 향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 추격의 과정은 텍스트의 가장 핵심에서 미결정된 의미로 남아 있으며 그것을 파악하려는 인식적 주체인 독자가 지속적인 실패를 통해 텍스트에 사로잡히는 모호한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온전히 고딕 작품이기는 하지만,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817)> 역시 강렬한 긴장감과 빠른 속도의 추격의 과정을 통해 인식적 주체로서 독자가 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힘을 지닌 주목할 만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을 추가로 간략히 살펴본다면 경계를 무화시키며 텍스트의 외부를 향해 있는 문학의 성질이 이 두 작품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헨리 서스만(Henry Sussman)은 <프랑켄슈타인>이 “큰 고양이와 쥐의 게임⁴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창조자가 괴물을 죽이려 추격하려는 부분은 독자를 스토리의 빠른 꿈과 같은 흐름 안에 둔다⁵⁰⁾”. 에이해브

47) Khalfa, Je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Gilles Deleuze*(London : Continuum, 2003). p.87.

48) Ibid. p.106.

49) Sussman, Henry. *Psyche and Text : The Sublime and the Grandiose in Literature, Psychopathology, and Culture*(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39.

50) Lee, Jae-Seong. Op. cit. p.225.

선장의 흰 고래 살상에 대한 의지가 그의 삶의 목표이듯이, 괴물에 의해 사랑 하는 여인과 가족을 잃은 프랑켄슈타인의 추격 또한 마찬가지이다. 극단적인 현실적 조건 위에서 자신을 내건 인물들의 이 강렬한 추격의 과정을 따라가는 독자는 텍스트를 대상으로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주제와 의미를 찾아낼 수 없는 몽환과 같은 상태로 떠밀리게 된다. 두 작품 모두의 경우에 이 추격의 과정은 그것의 명확한 주제화가 가능하지 않은 흐릿한 모호함의 상태를 강렬하게 제시하면서 인식의 주체인 독자가 “그들의 주제성의 외부를 훔쳐 보도록 한다.”⁵¹⁾

다시 <모비딕>으로 돌아와서, 에이해브 선장과 흰 고래 사이에서 연동하는 힘은 그 시작점과 종착점이 애매할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상태로 흐른다. 이 지점에서 주체와 대상은 분명히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무차별적인 영역으로 들어서는데, 주체는 대상을 포획할 수 없고 대상은 강력하게 주체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주체와 대상의 변증적 관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인식적 주체인 독자 또한 텍스트를 소모시키지 못한 상태로 머무른다. 들뢰즈의 에이해브의 고래-되기는 작품의 표면적인 서사의 아래층, 주체와 대상이 무의미로 환원되는 영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는 또한 “모비딕은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끔찍한 낚시줄”이며, 선장을 “공허(void 안으로⁵²⁾” 데려간다고 말한다. 들뢰즈가 말하는 공허는 텍스트가 견고한 의미로 종결되며 소멸된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공허 안에서 주체와 대상은 변증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서로의 특이성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무차별성으로 공존할 수 있다. 이 공허는 문학의 전통적인 주제화를 이탈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경계를 무화시키는 융합을 통해 발생한 무한한 의미들의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때의 공허는 전통적 주체가 힘을 잃는 수동성의 영역이자, 무의미가 그 의미의 근원으로 충만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들뢰즈는 <모비딕>의 주제화될

51) Ibid. p.225.

52) Deleuze, Gilles. Op. cit(1987). p.291.

수 없는 이면을 조명하며 텍스트에 대한 해체적인 접근을 통해 무한한 의미의 영역을 드러내도록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차용하면 에이해브 선장의 주체성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라캉은 주체성은 읽히지 않는 이면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논의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의 호접몽에 대한 논의는 꿈을 꾸는 에이해브를 통해 드러나는 이질적인 에이해브의 모습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장자의 호접몽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그의 정체성의 뿌리 중 하나를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그는 나비이다”(S XI 76)라고 말한다. 나비는 장자의 경험적 주체와는 상관없는, 그러나 꿈을 통해 명시된 그의 정체성의 뿌리 중 하나이다. 라캉은 “이것은 그가 나비에 매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포획된 나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의해 포획되었다(he is captured by nothing). (...) 그는 아무도 아닌 누군가를 위한 나비이다(He is a butterfly for nobody)⁵³⁾”라고 부언한다. 그런데 장자라는 현상적 주체는 경험적 세계의 규율과 규칙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반면에 꿈에서 나비로 분신한 장자는 협약적 세계에서 명명 받지 못한 채 무의미로 잔여 하는 근원적인 주체성을 나타낸다. 장자가 그의 꿈 안에서 궁극적으로 장자인 이유는 장자라고 이름 지어지지 않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꿈 안에서 장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 포획되었으며, 아무도 아닌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나비이다. 나비로서의 장자는, 대타자의 그물에서 대타자에 의해 의미화되어 현상적 세계 안에서 영위하는 장자를 비켜서서 존재하는 또 다른 장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로서의 장자는 가장 궁극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장자이다. 꿈에서 깨어난 장자가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은 장자의 순수하고 근원적인, 무의미의 주체성이 현상적 주체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발현되며 미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53) Lacan, Jacques. Op. cit(1998). p.76.

이 순간은 에이해브에게도 찾아진다. 투지의 전사인 에이해브 선장은 “손을 움켜쥐지 채 잠자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의 손톱은 손바닥 안에서 피투성이⁵⁴⁾가 되어 나오고, “밤중에 견딜 수 없이 생생하여 심신을 지치게 하는 꿈을 꾸고 그물 침대에서 뛰쳐나오곤 한다.⁵⁵⁾” 겁에 질린 채 도망치듯 꿈에서 현실로 탈출하는 에이해브 선장은 전혀 다른 주체이다. “해도를 검토한 뒤 침대에 들어가는 에이해브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도망쳐 나오는 에이해브와는 전혀 다른 사람⁵⁶⁾”이다. 에이해브는 강력한 자아와 의지의 초인적인 영웅이지만 이것은 에이해브의 전체가 아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하는 용맹함과 한낱 꿈에 불과한 어떤 것으로부터 공포에 질린 채 도망치는 유약함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에이해브는 분명 도망쳐 나오는 에이해브이다. 도망쳐 나오는 에이해브는 불가능함을 불식시키는 초인적 영웅으로서의 에이해브가 아니다. 이 겁쟁이 에이해브는 인지되지 못했으나 분명히 잔존하던 또 다른 에이해브가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출현은 주체를 전적으로 동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이 또 다른 주체가 나타날 때 강력한 자아로 대표되는 에이해브는 중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해브의 꿈은 배제되고 삭제될 수 없는 내면의 타자성과 그것의 출현에 속박되는 주체의 속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내면의 타자성의 출현은 경험/인지적 주체에게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순간을 불러온다. 죽음을 불사하는 초인적 영웅인 에이해브가 허상에 불과한 꿈에 의해 겁을 먹고 도망치는 순간은 에이해브가 자신의 내부에 잔여 하는 타자성을 감지하며 그것의 영향력에 전적으로 내맡겨진 순간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렇듯 들뢰즈의 문학관과 라캉의 이론을 차용하면 <모비딕>은 새로운 의미를 드러낸다. 들뢰즈의 문학관은 주제화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텍스트의 근원적인 의미의 영역을 조명하고자 시도한다. 라캉은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54) Melville, Herman. *Moby-Dick*(London: Harper Press. 2013). p.207.

55) Ibid. pp.207~208.

56) Ibid. p.208.

심층적 단서들을 제공하기에 문학 인물의 내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드러내는데, 이로써 문학 인물에 대한 전형적인 이해가 흐트러진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은 텍스트의 이러한 해독 불가능성을 발견하고자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그 해독 불가능성 안에서 주제화가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한, 읽기의 행위 또한 모호하고도 종결되지 않는 상태로 인식의 주체를 사로잡는다. 이 해독 불가능성은 문자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한 의미화의 과정 안에 흔적처럼 남아 있다. 레비나스는 문자를 통해 “누군가가 순수하고 간결하게 지나간다⁵⁷⁾”고 언급하는데, 이는 달리 말해 “문학 텍스트의 문자들은 지나가는 ‘누군가’의 흔적을 의미⁵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학작품은 일차적이고 표면적인 주제화 이면에 흐릿하게 잔여 하는 흔적과도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흔적은 현상적 언어로 포착되지 않은 채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며, 그 힘은 텍스트가 명확히 주제화 되어 종결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결국 텍스트를 지나가는 ‘누군가의 흔적’은 인지와 현상의 외부, 즉 자아의 외부인 절대적인 타자성의 흔적을 의미한다.

완전한 외계로서 타자성의 흔적을 이미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언어의 이러한 성질을 레비나스는 말함(the saying)과 말해진 것(the said)의 논의를 통해 윤리성과 결부시킨다. 말함은 “말해지지 않은 것(being unsaid⁵⁹⁾”이고, “말함은 말해진 것을 언급하고 주제화하지만, 그것을 타자에게 의미화 하는 것으로, 이 의미화는 말해진 것 안에서 단어로 발생하는 의미화와는 구분되는 것⁶⁰⁾”이다. 말해진 것 이전에 그리고 말해진 것의 외부에 있는 말함은 무의미가 아니라, 현상적 언어의 사슬 안에서 기표와 기의로 축소되어 하나의 의미

57) Levinas, Emmanuel. "Meaning and Sense". *Basic Philosophical Writing*. Eds. Adrian Peperzak.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p.62.

58) Lee, Jae-Seong. Op. cit. p.95.

59) Levinas, Emmanuel. Op. cit(1998). p.7.

60) Ibid. p.46.

화의 매듭을 맺기 이전에 존재하는 의미의 무한한 근원이다. 이 의미의 근원은 현상적 언어로 포착되지 않을 뿐 명백히 존재한다. 오히려 현상적 언어의 의미화와 주제화는 말함의 영역을 통하여 표명된다. 말함은 현상적 의미화 이전에 존재하고 그 의미 접합을 가능하게 하며, 의미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고갈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근원적이고 비-현상적인 무한한 의미의 영역이다. 따라서 주제화로 축소된 전통적, 현상적 언어는 말함의 의미화와는 구분되는 제한된 언어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주제화는 의미화의 매우 작은 표상으로 그 이면에는 말함의 무한한 근원을 반드시 동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레비나스는 “말함의 의미주기는 본질을 넘어선다⁶¹⁾”라고 언급한다. 말함이 본질을 넘어선다는 것은, 말함과 관계 안에서 주체는 인식의 주체를 초과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함은 인식의 의미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주체를 경험과 현상의 너머로 이끈다. 이 너머의 영역은 존재론으로 축약되거나 소진될 수 없는 무한히 펼쳐진 영역이다. 주체가 이 너머의 영역과 불가역적으로 맺는 관계가 인식적 주체가 타자성과 맺는 관계이며, 따라서 인간성의 본질은 이미 초월적인 어떤 것과 관계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말함은 타자에 대한 접근⁶²⁾”으로, 언어를 통해 존재론적 주체를 넘어서며 타자와 관계하는 인간성의 근원적인 성질이 있다.

<모비딕>에 대한 접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은 표면적 주제 이면에 그 주제와는 상관없는 모호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결정되는 듯 와해시키며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이 메시지 주변에서 주제화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그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알아차리는 움직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텍스트의 주제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텍스트의 총체성인데, 이것은 그 스

61) 레비나스의 ‘말함의 의미주기’(the signifyingness of saying)가 가리키는 의미화는 언어의 현상적 차원에서의 의미화가 아니다. 말함의 의미화는 현상적 언어로 축약 될 수 없는 상태로 전적인 의계, 절대적 타자성을 향해 열려있는, 무한한 근원적 의미와 관계하는 의미화이다. Ibid. pp.37~38.

62) Ibid. p.48.

스로를 파열하고 해체한다.⁶³⁾ 텍스트는 그 이면을 투영하면서 주제화를 제시하기 때문에, 빈틈없는 주제화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불가능성을 감지하는 주체는 텍스트의 자발적인 해체를 목격하는 셈이며, 이와 함께 견고한 인지적 주체 또한 그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인지적 주체가 망설이며 활동을 중단하는 이 순간은 또한 주체의 동요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함과 말해진 것 사이의 이 동요는 (...) 말해진 것에서 무질서한 말함으로 되돌려지는 것이다.⁶⁴⁾ 이 동요의 지점에서 주체는 말함과 말해진 것의 접점, 즉 주제화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 위치할 뿐 아니라 그 주제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말함의 영향력 안에 내맡겨진다. 그 영향력 안에서 주체는 텍스트가 재현하는 현상적 언어를 초과하는 비-현상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이때의 주체는 말함의 무한한 의미에 복속된, 타자성과 관계하는 초월적 주체의 일면을 보여준다. 주체를 현상적 경계로 밀어붙여 그 외부부를 감지하게 하는 이러한 힘이 텍스트의 윤리성이라 하겠다.

4. 주체와 예술 - 포스트모던 윤리비평가로서의 대중

문학 텍스트를 통해 주체가 인식적 주체성의 전적인 외계를 감지할 수 있듯이, 다른 장르의 예술 또한 그러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는 데서 주체의 윤리성 발현에 기여한다 할 수 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예술이란 “하나의 완전한 존재론적 사건이면서도 인식의 항목 중 하나로 축소될 수 없는 사건”이며 이를 “그림자의 침략⁶⁵⁾”이라고 언급했다. 예술은 있음도 없음도 아닌 그림자와 같은 환영이다. 분명 경험적 영역에서 감지되었지만 인식의

63) Lee, Jae-Seong. Op. cit. p.90.

64) Ibid. p.90.

65) Levinas, Emmanuel. "Reality and Its shadow". *Collected Philosophical Papers*. Trans. Alphonso Lingis(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p.3.

주체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동요시키며 인식의 총체성을 침략하는 성질이 예술의 윤리성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이 일상적 삶의 초월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끈다⁶⁶⁾”는 포스트모던 견해는 문학과 예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가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일상을 부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삶의 일상적 차원과 초월적 차원은 경계 지어졌으면서도 융합되어 공존한다. 그 경계에서, 문학과 예술은 재현의 총체를 과열해 이면의 비-현상성을 제시하며 주체를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은 스스로를 초과하는 비범한 대상이며, 주체는 이를 통해 현상적 세계가 그 막강한 힘을 상실하며 즉각적으로 퇴색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받는다. 포스트모던 윤리는 예술이 제공하는 이 계기를 조명하며, 주체가 경험하는 홀러넘치는 무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장 퉁 낭시(Jean-Luc Nancy)의 “그 스스로를 재현이나 표현으로 간주하는 예술은 사실상 한계 지어진-끝나버린, 죽어버린-예술이다⁶⁷⁾”라는 언급은 스스로의 총체성을 과열하는 예술의 근본적인 성질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예술로서의 문학작품은 주체를 향해 일반적 대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진다. 하나의 문학 텍스트는 완료된 작품이 아니라 여전히 의미를 형성 중인 미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재현된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거나 제시된 사건들을 통해 명확한 주제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불가능성을 행간에 밀착시킨 텍스트가 낭시가 말하는 예술다운 예술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를 통해 총체성이 과열되는 비-경험적인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범주화되거나 분류될 수 없다. ‘무언가가 있다’ 는 이 정서적

66) Lee, Jae-Seong. Op. cit. p.86.

67) Nancy, Jean-Luc. "The Sublime Offering". *Of the Sublime: Presence in Question*. Eds. Rodolphe Gasche and Mark C. Taylor. Trans. Jeffrey S. Libret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28.

확신은 언어적 표현 안으로 취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학과 예술은 그가 선-존재론적인 경험을 겪어낼 길을 내어준다.⁶⁸⁾” 그러나 그 길은 고통과 쾌락의 미묘한 융합을 선사하며 개인마다 모두 상이하다.

예술을 통해 주체는 비-경험적인 정서적 감흥에 휩싸이지만 이 감흥은 너무나 특수하기 때문에 범용적 언어로 공유될 수 없다. 이때 각각의 주체는 인간 존재의 개인적 내면에 개념화되어 있는 감정의 극한에 입지한다. 낭시는 “송고는 극단에 있는 주체의 감정”이며, “송고의 주체는 동요된 주체⁶⁹⁾”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지극히 고독한 영역에서 예술을 통해 안정적 감정의 총체의 파열을 경험하는 주체는 낭시가 언급하는 송고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감흥에 의해 발현되는 송고의 주체는 경험적 주체를 넘어서는 또 다른 주체성을 가진다. 이 때 주체는 현상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는 미묘하면서도 압도적인 감흥에 내몰린다. 이 비-현상적이고 비-언어적인 감흥은 정확히 의미화할 수 없기에 무의미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주체를 전적으로 동요시키며 사로잡는다. 낭시가 언급하는 송고의 주체는 예술을 통해 순간적으로 현상을 넘어서며 초월적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성질을 설명한다. 스스로를 넘어서며 완전한 타자성을 알아차리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요소는 앞서 살펴본 레비나스의 감성의 주체 또는 라캉의 사라짐의 주체와도 상통한다. 레비나스는 감각과 인지로 포착될 수 없는 무의미를 감지하며 이 무의미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인간 존재의 성질을 감성의 주체성이라 명명하며 이를 주체성의 또 다른 일면으로 확신하였으며, 라캉 또한 주체의 이면에는 반드시 무의미가 동반된다고 직관하며 그 무의미의 영역에 사라짐의 주체성이 잔존한다고 설명하였다. 비-언어적, 비-현상적, 비-경험적인 무의미의 주체성은 자아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현상과 경험의 주체에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며, 이 무의미의 주체성은 주체에게 속하면서 동시에

68) Lee, Jae-Seong. Op. cit. p.92.

69) Nancy, Jean-Luc. Op. cit. p.44.

완전히 이질적인 타자성에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무의미의 주체성이라는 것은 인간성과 인간 존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송고의 주체와 라캉의 사라짐의 주체, 그리고 레비나스의 감성의 주체는 사회적이고 규율적인 주체의 힘을 일순간 봉쇄시키며 출현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학문과 예술의 각기 다른 영역에서, 아무 곳도 아닌 곳에서 존재하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주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며, 그 시도를 통해 인간 존재의 주체성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탐구하는 주체성은 타자성과 관계하는 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윤리는 주체가 외부를 경험과 인식의 총체성안으로 반영하기 이전에 타자성과 즉각적으로 관계하는 주체성, 즉 언어와 현상으로 변형되기 이전의 순수하고 근원적인 의미를 감지하는 주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윤리가 조명하는 주체성은 인간 존재가 자아의 이기적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고, 외부에 대한 폭력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또 다른 면모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이러한 윤리적 주체가 발현될 수 있는 강력한 계기인 셈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가 또한 명백한 현상적 존재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송고의 주체가 발현될 때 주체는 그 파열과 동요의 순간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라캉에 따르면 세계(대상)가 주체의 응시를 자극할 때, 기이한 느낌(feeling of strangeness)이 즉각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한다.⁷⁰⁾ 또한 물자체(Das Thing)의 자리에서 주체는 그것이 도착적인 것이던 승화이던(whether it be perverse or sublimated) 주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⁷¹⁾ 라캉은 이 “기이한 느낌”에서 멈춰서고 파열을 주저하는 경험적

70) Lacan, Jacques. Op. cit(1998). p.75.

71)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0-1960*. Eds. Jacques 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92). pp.109~110.

주체를 드러낸다. 인식적 주체, 경험적 주체는 타자성의 영역을 부재의 영역으로 즉각적으로 일치시킨다. 다시 말해, 이성과 현상이 구축한 총체성의 권한이 상쇄되려할 때, 주체는 그 파열을 주저하고 그 찢나를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인식의 주체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 포스트모던 윤리는 이 파열의 찢나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자 시도한다. 포스트모던 윤리는 그 파열의 순간 흘러넘치는 무의미와 고통과 쾌락을 넘나드는 전 영역의 감성이 주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기 파괴적 결함의 순간이 아니라 현상/비현상을 떠나 대상과 주체의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의미를 가늠하게 하는 인간성의 진정한 본성임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예술이 도처에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유일무이한 원전의 현존으로 예술을 감상하던 시대는 오래전이며, 대중은 이미 비평가의 지위⁷²⁾를 획득하게 되었다. 예술의 양산은 비평의 개별화를 촉진시킨다. 현대의 삶에서, 비평가는 독보적인 예술의 원전과 수두룩한 대중 사이를 매개하는 희소의 지성이 아니다. 비평은 대중적이지 개별적인 것이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렇게 개별화 된 비평의 자리에서, 각각의 다채로운 총체의 파열을 존재의 내부로 연결시키며 그것의 근원적 의미를 제공한다. 포스트모던 비평은 “독자가 텍스트에 의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논리적 추론의 굳은 통제력을 잃어버릴⁷³⁾”때를 조명한다. 이 순간에 “독자의 주체성의 이원성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이분법의 구조가 파괴⁷⁴⁾”된다. 이분으로 견고하게 구축된 내부의 총체성이 파열되고 주체는 그 파열의 틈새에서 독특하고 이질적인, 어떠한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감성과 의미들을 대면한다. 이 낯선 감성과 무의미에 자발적으로 영향 받는 주체가 윤리적 주체라

72) 벤야민은 “청중은 비평가의 지위를 획득”하고 “작가와 대중의 성질의 구분이 상실”되어 “독자는 언제나 작가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학은 일반적인 영역”이 되었고, “영화는 [...] 대중을 비평가의 위치에 둔다”고 언급한다. Walter Benjamin, Op. cit. pp.228~240.

73) Lee, Jae-Seong. Op. cit. p.226.

74) Ibid. p.226.

할 수 있다. 인간의 윤리성은 현상과 언어를 넘어서는 가능성에 다름 아니며, 이 가능성안에서 인간은 대상과 세계를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이 인간의 타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타자는 타자성을 내포하면서 타자일 수 있다. 예술작품은 인식의 총체를 파열시키는 타자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가 말하고자 하는, 타자를 절대적으로 꺾어내는 인간의 근원적인 윤리성을 예술비평에 접목하는 것을 그릇된 맥락이라 볼 수만은 없다.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일자'로서의 윤리적 주체에 대한 철학은 인간이 총체의 파열의 순간에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근원에는 인간의 윤리성을 자리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따라서 주체가 그 파열을 주저하지 않고 만끽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레비나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본고가 인용한 사상가들이 비록 첨예한 차이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인식불가능성과 무의미의 영역으로 대표되는 타자성의 영역을 심구한다는 데서 크게 상통하며, 이는 그들을 포스트모던 사상가로 불리게 할 무시할 수 없는 특성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조 안에서, 포스트모던 윤리의 문예비평은 예술이 가져오는 정립불가능한 감성이 파열을 통해 타자성을 수용하는 주이상스와 같으며, 그 수용은 이미 인간의 본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주체란 이미 현상과 비현상을 탈-경계화 하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각성케 한다. 결국 문학의 목적은 주체화가 아닌 탈-주체화에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타자성에 영향받는 주체성이 인간 존재의 근원에 자리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문예비평으로서의 포스트모던 윤리가 개별화된 비평가인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문학 텍스트가 지닌 근원적인 힘을 느끼도록 독자를 이끌어준다 하겠다.

참고문헌

- 신명아, 『라캉의 주체개념과 정신분석의 윤리학』, 『현대정신분석』 2(1), 2000, 143 ~161면.
- Bauman, Zigmund. *Postmodern Ethic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3.
- Benjamin, Walter. *Illuminations*. Trans. Harry Zohn. Ed. Hanna Arsendt. New York: Schocken Books. 2007.
- Davis, Colin. *After Poststructuralism: Reading Stories and Theory*. New York: Routledge. 2004.
- Deleuze, Gilles. *A Thousand Plateaus*.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Minnesota UP. 1987.
- _____. *Cinema 2-The Time Image*. Trans. Hugh Tomlinson & Robert Galeta.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 _____.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Trans. Daniel W. Smith and Michael A. Groco. Minneapolis: Minnesota UP. 1997.
-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7.
- _____.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_____. "Differance".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Glan, Martin T. "Deconstruction and Breakthrough in Nietzsche and Nagarjuna" *Nietzsche and Asian Thought*, eds. Graham Park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p.91~111.
- Khalifa, Je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Gilles Deleuze*. London: Continuum. 2003.
-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0-1960*. Eds. Jacques 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W.W.Norton & Company.Inc. 1992.
- _____.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 of Psychoanalysis*. Eds. Jacques 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Inc. 1998.
- Lee, Jae-Seong. *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 East and West*. London:Lexington Books. 2015.
-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U of Duquesne P. 1998.
- _____.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U of Duquesne P. 1969.
- _____. “Meaning and Sense”. *Basic Philosophical Writing*. Eds. Adrian Peperzak.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pp.33~64.
- _____. “Reality and Its shadow”. *Collected Philosophical Papers*. Trans. Alphonso Lingis.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pp.1~13.
- Lyotard, Jean-Francois. *The Postmodern Conditions*.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 Melville, Herman. *Moby-Dick*. London: Harper Press. 2013.
- Nancy, Jean-Luc. “The Sublime Offering”. *Of the Sublime: Presence in Question*. Eds. Rodolphe Gasche and Mark C. Taylor. Trans. Jeffrey S. Libret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p.25~53.
- Sussman, Henry. *Psyche and Text: The Sublime and the Grandiose in Literature, Psychopathology, and Cultur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Abstract

Postmodern Ethics and Subject, *Moby-Dick* and Literary Criticism

Son, A-young*

This thesis focuses on how the ethical studies in Postmodernism discover the new elements of the subjectivity in terms of its relation with the alterity and tries to further discuss the possibility of conjunction between Postmodern ethics and literary criticism. To develop the discussion, it examines the works of Jacques Derrida, Jacques Lacan and Emmanuel Levinas and deepens the discussion to sublime subjectivity manifested by works of art. Literary texts as art, constantly interrupt thematizing. This failed thematizing captures the subject in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status. This is a moment of non-empirical experience for the subject and also the encounter of wholly other. Text can be the fundamental trigger for the subject to recognize what is absolutely other than himself/herself. The thesis provides exemplification of literary reading on *Moby-Dick*. Gilles Deleuze insists *Moby-Dick* is one of the best examples that proves his theory of 'becoming'. This thesis tries to demonstrate how *Moby-Dick* includes the non-thematizing force. The reader as subject, instantly enters into the infinity of the alterity. In Postmodernism ethics, this moment can be understood as completely positive originality of the human being toward the other.

Key Words : Postmodernism, Ethics, Transcendence, Subjectivity, Alterity/Otherness/The other, Literary Criticism, Sublime, *Moby-Dick*

* Pusan National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손아영

소속: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ellieness0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20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6일